

한-중 대학의 현재 · 미래 공유

한-중 대학 총장포럼

제13회 한-중 대학 총장포럼이 7일 전북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 등 한국 26개 대학과 길림대 등 중국 21개 대학 등 모두 47개 대학 총장, 그리고 교육부, 전라북도, 주한중국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한중대학 협력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 등 두 가지 주제로 한국 측 7개 대학, 중국 측 12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 김현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 혁신 성장의 중심인 캠퍼스 혁신에 대해 발표한 것을 비롯해 임현섭 충남대 기획처장이 국립대학육성사업, 김석수 부산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중국측에서도 엄순화 난주대학 총장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



제13회 한·중 대학 총장포럼이 7일 전북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 등 한국 26개 대학과 길림대 등 중국 21개 대학 등 모두 47개 대학 총장, 그리고 교육부, 전북도, 주한중국대사관 등이 참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발전 위한 대학 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교육 혁신 방향 · 과제 등 주제로

하에 대학교육의 탐색과 실천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비롯해 당기주 우

한대학 부총장이 학부 인재양성을 위한 우한대학의 교육 정책 등에

대 발표했다. 또한 중국석유대학 대

체려 부총장은 에너지 분야 대학원 생 핵심 경쟁력 육성 모델을 하문 대학 주대왕 부총장은 새로운 시대의 고등교육을, 하얼빈공업대학 견량 부총장은 교육의 대외 개방 확대와 인재의 다문화 양성 모델 등에 대해 발표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교육 공유가 이어졌다.

한편 이번 포럼은 양국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약해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교육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통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김동원 총장은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양국 대학들이 우의를 다지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양국 총장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중대학 총장포럼이 단순한 주제발표의 장을 넘어 한중 대학 간의 우의를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의 '지음(知音)'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저탄소 식단 자료집 개발 앞장

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 등 위해 채식 레시피 개발협의회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저탄소 식단 개발에 적극 나섰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15~30일까지 '저탄소 학교급식 채식 식단 레시피 공모전'을 실시. 이에 따른 저탄소 채식식단 및 오븐요리 자료집 개발을 위한 협의회를 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식단 레시피 공모전은 '나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채식급식 레시피',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맛있는 채식급식 레시피', '나만의 비법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채식급식 레시피', '우리고장 식재료를 활용한 저탄소 채식급식 레시피'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번 협의회에는 학교급식 주요정책 사업인 저탄소 환경급식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식단제공을 위해

채식식단 식재료 지원사업 운영학교 담당자 및 지역교육청 식단개발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한다.

협의회를 통해 △저탄소 학교급식 채식식단 레시피 공모전 식단 △로컬 푸드를 활용한 한토음식 식단 △동아리 회원들이 개발한 채식식단 및 오븐요리 레시피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 가정통신문 및 식재료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게 된다.

이시기 인성건강과장은 "저탄소 환경급식 운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급식 식단"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탄소 채식급식, 건강한 오븐요리, 우리고장 식재료를 활용한 저탄소 급식등의 식단 레시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자료집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군산 중앙여고, 수석교사 역량강화 연수

AI 활용 수업 운영 사례 주제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들이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마련했다.

전북 중등수석교사협회(회장 김상기)는 7일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교장 김종복)에서 중등 수석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등 수석교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번 연수는 지난날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오는 1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AI를 활용한 수업 운영 사례를 주제로 미래교육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AI에 대한 교사들의 호기심을 해소해주고자 기획됐다.

1회차는 익산 영등중학교 윤수영 영어 교사가 'AI 스피커를 활용한 영어 수업 사례'를 소개했고, 2회차와 3회차는 전주 전일고등학교 유효종 교사가 '허스키 렌즈를 활용한 AI 로봇 수업 사례'를 소개했다.

유효종 교사는 '허스키 렌즈로 사물 인식 하는 AI 로봇 제작하기' 수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는 허스키 렌즈로 사물인식하기와 마이크로 비트기판을 사용해 AI 로봇을 설계해보는 한편 간단한 AI 로봇 시제품도 만들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기자



전북중기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6기 수료식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6기 수료식이 지난 6일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최고경영자과정은 전북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전주대 IINC 3.0 사업단과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6기 수료생 47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54명이 수료했다.

강의는 지난 6월 7일 개강해 17주 동안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강의로 매주 화요일 진행됐다.

특히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위한 특강으로 과정을 개설.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 트렌드에 대한 명사 특강이 이뤄져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우수이수자로 티앤제이 건설(주) 고태우 대표이사, 조정민 세무회계 사무소 조정민 대표, 완주군청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최옥현 소장에게 전주대학교 표창패를 수상했고,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유기달 총괄이사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장은성기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협약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자율참여강좌 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진흥원이 공동 운영하는 K-MOOC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MOOC 플랫폼이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각 기관에서 신청된 강의를 엄선해 K-MOOC 플랫폼에 탑재할 강의를 선정·검수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강의는 쉽게 듣는 실용음악 - 어서와 실용음악은 처음이지?다. 7일 호원대에 따르면 실용음악학부 정수욱 교수가 개발했다.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선정된 이번 강의는 12월 최종 검수를 거쳐 2023학년도 1학기과 2학기 총 2회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호원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알리고 개인학습자의 기초소양 및 직업전문성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예비 호원대 실용음악학부생과 평소 실용음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실용음악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의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2022년 전북 지역아동센터 성과포럼이 7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올 한해 전북 지역아동센터 우수사례 공유

전북대서 위탁 운영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성과포럼 열어

전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박신애·이하 지원단)의 올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2022년 전북 지역아동센터 성과포럼이 7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거석 교육감과 강영규 교육 복지여성보건의장, 전북대 최원규 교수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박용근 도의원 개벽장학회 이영섭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군 지역아동센터 담당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지원단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

역아동센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아동센터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월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해 총 25센터가 참여했다. 이중 심사를 통해 5개 센터(기린·한우리·아이들천국·북홍은누리·1318해피존행복스케치 지역아동센터)가 우수사례로 선정,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한 지원단은 289개소 지역아동센터 656명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7,400명 아동들의 마음을 담아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준 개별

장학회 이영섭 이사장 이병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박용근 전북도

의원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신애 단장은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한 2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감사사를 전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한 2022 전북도 지역아동센터 성과포럼"의 긍정적인 반응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포럼에서 공모된 모든 사례는 추후 "지역아동센터 우수사례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고 매너주차 지켜요'

전북대 농생대, 캠페인 전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고 매너 주차 지켜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백승우)은 7일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생대에 따르면 어떻게든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과 사고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전동킥보드 매너주차존을 설치했다.

이 자리에는 농생대 보직교수 및 행정실 직원, 학생회 회장단 등이 참석, 오후 2시부터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개선 내용을 담은 어깨띠를 두르고 농생대 일원을 돌며 주차 매너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앞으로도 농생대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매너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7일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백승우 학장은 "전면 대면수업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이동량이 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농생대가 선제적으로 전동킥보드 매너 주차존을 설치하

고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기자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엿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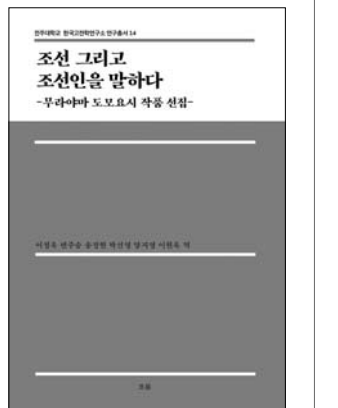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연구총서 14권 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최근 일본인 최초의 춘향전 연출자이자 문화인으로 알려진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조선 관련 작품을 번역 출간했다고 전했다.

7일 HK+연구단에 따르면 한평생 조선·조선인을 사랑한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조선 관련 작품을 번역한 '조선 그리고 조선인을 말하다'를 간행했다.

한편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 道義, 1901~1977)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경험을 작품으로 남겼던 수많은 예술인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소설, 연극, 평론 등 30여 편의 작품에서 조선·조선인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한 인물로 유명하다.

특히 연구총서 14권은 무라야마의 조선 관련 작품 중 1935년부터 1947년까지 발표한 소설 7편과 무라야마가 경성(現 서울)에서 기록한 1945년 일기를 번역해 수록했다. 국내에서 무라야마 도모요시 연구의 선구적 임지를 다진 이정욱(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



과) 교수를 필두로 다양한 시대사 연구자들이 번역에도 참여했다.

HK+연구단 관계자는 "이 책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미공개 사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식민지 조선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